

# 현 시기 조선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는 민족명절과 민속놀이에 대하여

리재선\*

## 【국문초록】

민족명절이란 민간에서 특별히 정하고 맞는 절기의 이름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우리 인민들이 민속명절을 쇠온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니,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무천', '영고' 등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행해져 왔다.

설은 해마다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여 쇠는 명절로 이날에는 돌아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으며 민속놀이로 윷놀이, 널뛰기 연 띄우기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었다. 정월대보름에는 약밥, 복쌈, 나물반찬, 부름 깨기, 귀밝이술 등의 음식을 먹으며 달맞이를 하고 화불 싸움 놀이, 밧줄 당기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5월 수리날(단오)에는 죽떡을 만들어 먹으며 여인들은 창포 잎으로 머리를 감았고, 씨름과 그네뛰기, 탈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하였다. 한가위 날에는 조상의 무덤을 성묘하였으며,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을 만들어 먹었고, 씨름, 소 놀이, 거북 놀이, 강강수월래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다.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우리 인민들의 노동생활, 사회생활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창조되었으며 오랜 역사적 기간 계승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우리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어 전하여오는 민속명절들과 민속놀이들이 널리 장려되며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주며 문화정서생활에도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주제어 민족명절, 민속놀이, 설맞이, 정월대보름, 5월수리, 8월한가위, 씨름, 윷놀이

---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 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민족전통들은 오늘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널리 계승 발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짙게 어려 있는 민족명절과 민속놀이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우리 인민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의 민족적 전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온갖 은정과 조취를 취하여 주고 있다.

민족명절들인 설명절과 정월대보름명절을 크게 쇠도록 하였으며 단오와 추석을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불러오던 대로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면서 그 전통을 살려나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하나하나가 특색 있는 민속놀이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관성이 높은 텔레비전과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그 방법과 우수성을 널리 소개전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민속놀이 경연과 경기를 조직하고 이를 위한 전국적인 방식상학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있음으로 하여 예로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긍지 높은 인민답게 우리 인민들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널리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민족명절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대로 즐겁게 쇠고 있는데 대하여 민속명절이란 말 그대로 민간에서 특별히 정하고 맞는 절기의 이름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연 기후적 조건과 농사의 절기를 참작하여 뜻있는 날을 민속명절로 정하고 맞이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숫자가 중복되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과 달 밝은 보름날들인 1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등을 명절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민속명절들에 의의를 둔우고 즐겁게 맞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의례적인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들이 민속 명절을 쇠어온 력사는 매우 오래다.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의 예 지방에서는 해마다 10월을 즐겁게 맞이하였다. 이것을 력사 기록에서는 ‘무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부여에서도 12월에 여러 날 ‘영고’라는 놀이를 하였다.

또한 진국의 마한지방에서는 해마다 5월에 파종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어울려 노래 부르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고대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즐겁게 노는 명절맞이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명절맞이는 그 후 5월 수리날과 10월 상달, 12월 랍일 명절맞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명절맞이풍습은 이미 삼국사기에 그 기틀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오랜 기간 전승되어왔다. 삼국시기에는 설맞이, 정월 대보름, 3월 삼짇날, 5월 수리, 6월 류두, 8월 한가위, 9월 중구, 10월 동맹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은 설맞이, 정월대보름, 5월 수리, 8월 한가위에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고 오랜 역사적 기간 크게 쇠어왔으며 그 전통은 오늘 까지도 우리 인민들 속에 계승되고 있다.

### 설맞이 풍습

설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해마다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여 쇠는 명절이다. 옛 기록에는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설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선 명절맞이 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워오면 녀인들은 명절날에 가족성원들이 입을 옷을 깨끗이 마련하였다. 이것을 지난 시기에는 '설빔' 또는 '세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 안팎도 깨끗이 청소하고 손질하여 주위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렸다. 이때 '십장생'과 범, 닭 등의 그림을 붙이기도 하였다.

설달 그믐날에는 밤늦게까지 설맞이준비를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을 설을 지킨다는 뜻에서 '세수한다'고 하였다.

설날에는 먼저 돌아간 조상에게 설 인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차례(제사)를 지내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세배는 집안사람들의 향렬에 따라,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류 다른 형식의 세배풍습도 있었다. 그것은 이웃이나 친구네 집에 직접 찾아가 세배를 할 수 없는 경우 좋은 인사말을 적은 종이를 나이 어린 아이에게 쥐여 보내어 상대방 집 대문 안에 놓인 탁자 위에 그것을 놓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세배형식을 '세함'이라고 하였다. 이 '세함'풍습은 유럽에서 우편법이 제정되기 수 백 년 전부터 있었다.

설날에는 다음으로 설음식을 잘 차려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곳에 모여 나

누어 먹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설날의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였다. 이날에 특색 있는 음식은 찰떡, 설기떡과 같은 떡과 여러 가지 지짐류, 당과류, 식혜, 고기구이, 과일, 술 등이었다. 특히 이날에 떡국과 만두국은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었다. 떡국에는 꿩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기본이나 꿩이 없을 때에는 닭고기를 넣고 끓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도 전해오고 있다. 설날에는 아침에 육계, 산초, 흰삼주뿌리, 도라지, 방풍 등을 넣고 고운 찬 도수주를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한잔씩 마시는 풍습이 있다. 이것을 '세주불은'이라고 하였다.

설명절을 특색 있게 장식한 것은 민속놀이였다. 민속놀이로서는 윷놀이, 널뛰기, 연 띄우기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었다.

설날저녁에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 정월대보름맞이 풍습

정월대보름명절은 정초부터 시작된 명절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명절과 관련해서는 삼국시기 신라 소지왕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월대보름은 14일부터 쇠기 시작하였는데 14일을 '작은 보름',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작은 보름에는 '날가리대세우기' 등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풍습이 있었고 이날 점심에 국수를 먹었다. 큰 보름에는 달맞이를 하고 화불싸움놀이를 하였다.

대보름날에는 다른 명절들에 비하여 음식들이 특색 있었다. 이날의 독특한 음식으로는 약밥, 복쌈, 나물반찬, 부름깨기, 귀밝기술 등이었다.

약밥은 영양가가 높은 고급 음식으로 찰밥에 꿀, 대추, 밤, 참기름 등을

넣고 지은 밥이다.

복쌈은 배추 잎이나 김 등으로 쌈을 싸먹는 것이고 나물반찬은 9가지의 묵은 나물로 찬을 해먹는 것이다.

이날 아침에는 ‘부럼깨기’(부스럼깨기)라고 껍질이 굳은 밤, 호두, 잣, 은행 등을 깨물어먹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가 튼튼해진다고 하였다.

‘귀밝기술’은 아침에 찬술을 한잔씩 먹으면 귀가 밝아지고 그 해에는 좋은 소식만이 들린다고 하면서 마시는 것이다.

대보름명절에는 연 띄우기, 밧줄당기기가 특색 있는 민속놀이였다.

늦가을부터 시작된 연 띄우기는 정월대보름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연 띄우기를 하지 않았다.

밧줄당기기도 정초부터 시작된 애기줄 당기기가 대보름날에는 어른들의 놀이로 결속되었다. 이날에 밧줄당기기는 마을과 마을, 군과 군사이의 대항으로 벌어지곤 하였는데 거기에 참가한 인원만 수 백, 수 천 명을 헤아렸다.

이밖에 대보름날에는 ‘다리밟이’, ‘수레싸움’ 등의 민속놀이도 하였다.

### 수리날(단오) 명절 맞이 풍습

수리날에 대하여 고대시기 진국의 마한지방에서 5월에 파종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겨 논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오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오맞이를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인 굴원(BC. 340~278년)이 참소로 강남에 류배되었다가 물에 빠져죽었다는 5월 5일과 결부시키고 있으나 이때부터 쇠왔다는 기록은 없고 중국의 ‘주처풍토기’에 진(A.D. 265~316년) 나라 때 단오를 명절로 섰다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음력 5월 5일 명절맞이가 중국과 형식이 다르고 또 고유한 명절, 명칭이 있으며 고대시기 음력 5월 5일과 결부시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5월 수리날 명절맞이는 조선의 고유한 민속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리날에 우리 인민들은 썩떡과 같은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의 특색 있는 민속으로는 녀인들이 창포잎과 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거나 물맞이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름철에 쓸 부채를 만들어 주고 받으며 우정을 두터이 하였다.

이날의 민속놀이는 씨름과 그네뛰기, 탈놀이였다. 씨름은 전국적으로 다 하였지만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이 유명하였다.

저녁에는 마당에 명석을 펴놓고 탈놀이로 명절을 장식하였다.

#### 한가위(추석) 명절맞이 풍습

한가위명절맞이는 이미 삼국시기에 ‘가배날’이라고 하면서 쇠는 풍습이 있었다.

한가위날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이것을 ‘성묘’, ‘산소보기’라고도 하였는데 먼저 여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잔디를 일매지게 깎아준 다음 조상들의 무덤을 향렬별, 연령별 순서에 따라 보았다.

한가위날의 독특한 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 시루떡, 술, 밤단자 등이었다.

이날에 송편은 빠져서 안 되는 음식이었다. 그만큼 송편은 한가위를 상징하는 음식이었다.

평양지방에서는 흰참쌀과 엇길금가루로 만든 노치가 유명하였다.

이날에도 우리 인민은 씨름,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수월래 등의 민속놀이로 하루를 즐겼다.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쇠 온 민속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명절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리에 직관물을 제시하기도 하고 달력에도 표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명절준비도 잘하고 또 당일에는 즐겁게 쇠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다채로운 명절문화행사를 조직하여 명절을 더 즐겁게 쇠고 있으며 가정들에서는 명절에 맞는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즐겁게 쇠고 있다.

#### 민속놀이를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민속놀이는 인민들이 민족의 전통적인 기질과 감정에 맞게 창조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지능을 향상시키며 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우리 인민들의 로동 생활, 사회생활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창조되었으며 오랜 력사적 기간 계승 발전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하여오는 민속놀이는 300여종이나 되며 그 변종까지 보면 500여 가지를 훨씬 넘는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체력단련에 유익한 것, 지능개발에 좋은 것,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등 여러 측면에서 특색있는 것들이다.

현 시기 널리 장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씨름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리에 살바를 매고 힘을 겨루며 기교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민속놀이인 동시에 민족체육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들이 씨름을 하여온 력시는 매우 오래다. 삼국시기에 우리의 씨름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의 무덤들인 씨름무덤(4세기 말엽)과 정천1호 무덤(5세기중엽)의 벽화들에는 두 씨름꾼이 허리에 맨 살바를 잡고 힘을 겨루는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 옆에 한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심판을 서는지 아니면 그들의 훈련을 지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들은 18세기의 씨름그림과 옷차림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씨름하는 방법은 같다.

그림을 통하여 삼국시기 씨름은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으며 오랜 력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문화발전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후 씨름은 고려, 리조 시기를 거쳐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씨름은 나이와 힘에 따라서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으로 구분하여 흔히 애기씨름-어린이씨름부터 시작한다.

씨름판은 널따란 마당에 두어 칸(4m 정도)되게 둥그렇게 모래를 펴서 만든다.

경기차림은 아래에 짧은 바지를 입고 넓적다리에 두어 발되는 베천으로 살바를 매는 것이다.

우리나라 씨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살바를 매는 것은 그것을 매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얼핏 보면 그 수법이 제한된 감을 주나 살바를 맨 것으로 하여 더 많은 기술수법들이 적용되고 기발한 련결수들이 나오게 된다.

때문에 우리의 씨름에는 그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을 크게 손수, 다리 수, 몸통 수로 나눈다.

경기씨름은 흔히 황소를 상으로 걸고 진행한다.

최근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씨름을 5월 수리날 전국적인 경기로 진행

한다.

특히 이날에 벌어지는 씨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시는 대 황소를 상으로 걸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 학교들에서도 명절이나 휴식일 등에 경기종목으로 빠져서는 안 될 민속놀이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씨름은 경기장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며 놀이시작이 안전하고 승부가 명백한 것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다 즐기는 대중적인 놀이로 장려되고 있다.

### 윷놀이

윷놀이는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나온 점수에 따라 말을 쓰며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부여의 관직명에서부터 유래되어 전하여 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윷놀이에 쓰이는 명칭들인 ‘도’, ‘개’, ‘걸’, ‘윷’, ‘모’가 부여의 관직명과 일치되며 또 기록상으로는 8세기에 보이지만 고대시기로 소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윷놀이는 중세 전 기간 놀이방법에서 변화가 없이 전하여 왔으며 오늘에도 그대로 우리 인민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설 명절뿐 아니라 휴식일, 일하다 쉬는 참에도 즐겨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놀이는 설명절과 한가위를 계기로 전국 근로자들의 경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어디에서나 매우 이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윷놀이는 놀이방법이 건전하면서도 대중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지능도 계발시켜주는 문화정서생활에 좋은 민속놀이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널뛰기, 그네뛰기, 밧줄당기기, 제기차기, 줄넘

기, 팽이치기, 진놀이 등 수 십 가지의 체력단련놀이와 바둑, 장기, 꼬니 등 지능계발에 좋은 놀이들, 강강수월래, 단심줄놀이, 숨박곡질, 까막잡기, 공치기, 꼬리잡기, 길따라잡기 등 가무 및 유희를 동반한 많은 민속놀이들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벌어지며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어 전하여오는 민속명절들과 민속놀이들이 널리 장려되며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주며 문화정서생활에도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Abstract

## The Present Myôngjôl and Folk Games

Yi, Chae-Sôn

Myôngjôl (Festive Days) denoted the days people naturally came to observe from the past. It celebrates a couple of important terms among 24 solar terms. The folk customs and games involved in Myôngjôl have continued since the ancient time. For example, Sôl (New Year's Day) accompanies the ritual for the ancestors, at the same time, juniors pay a visit to seniors for a formal bow of respect to the elders. People on New Year's Day play various games like Yunnori, Nôlttuigi, or flying kites. Korean folk games were created in our living conditions, reflecting the social background. So far, the state exerted to propagate these traditional folk customs to maintain Korean indigenous cultural assets.

**Key Word**

Myôngjôl (Festive Days), Minsôk Nori (Folk Games), Sôl (New Year's Day)